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0월16일

제3회 예수사랑 큰잔치

‘전도—양육운동’으로 자리잡아 나가기를 기대

전도로 시작, 양육으로 끝맺기를

교회는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오는 10월 16일(주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세부 계획에 착수했다. 지난 92년도에 처음 실시한 예수사랑 큰잔치는 해가 거듭하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잘된 점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진정한 ‘전도 - 양육’ 운동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는 전 교인이 한 목표로 힘을 쏟음에 따라 전교인 단합의 기회가 됨으로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에 전도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전도 - 양육을 묶어서 양육적인 면에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지난 해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보내지 못하고 예수사랑 큰잔치가 열려 그리스도의 편지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활용하여 열두 통의 편지를 다 보낸 후 초청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여 운동을 실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늘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기에 양육으로까지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보다 내실있는 전도 - 양육운동을 지향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거품식의 전도와 초청, 또는 타교인을 당일만 참석케 하여 숫자경쟁을 하는 일들은 지양할 계획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여 각 교구나, 각 부서, 개인 등은 주변을 잘 살피며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새가정부 가정 세미나

오늘은 나연숙 권사의

‘사랑의 열매’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 새가정부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 세미나’가 매번 시간을 맞고 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할렐루야 교회의 나연숙 권사(사신)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다.

가정 세미나는 매주일 성황을 이루어 장소도 새가정부실이 아닌 교육관 212호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회학교 고등부 청소년의 신앙지도를 위한 학부모 모임

6월 1일(수)부터, 베다니홀에서

교회학교 고등부는 ‘청소년 신앙지도를 위한 학부모 모임’을 오는 6월 1일(수), 수요일 1부 예배 전 오전 10시~11시까지 베다니홀에서 갖는다.

이 모임은 청소년 학부모들이 모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와 청소년 지도에 관한 강의, 토의 등을 하는 모임으로 학기 중에 늘 있어 왔었다.

금년은 고등부 지도교역자의 이동으로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중, 고등, 대학생 학부모들이 대상이 된다.

충현기도원 설립16주년 기념

5월 30일~6월 2일, 부흥집회 ‘기도로 새힘 받자’

충현기도원은 기도원설립 16주년을 맞으며 이를 기념하는 부흥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는 5월 30일(월) 저녁부터 6월 2일(토) 저녁까지 모임 부흥회는 ‘기도로 새힘 받자’라는 주제하에 모이게 되는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당에서 매일 오전 9시 - 10시와 오후 6 - 7시 사이에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찾아갈 경우는 광주읍에서 곤지암행 일반버스를 타고 대쌍리에서 내려 10여분 걸어서 갈 수 있다.

전교인 도서 수집

5월 8일 ~ 7월 3일까지,

도서관 장서 확보 및 각 기관 기증키 위해

도서장학회에서는 지난 5월 첫주부터 7월 첫주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수집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우리 교회 도서관에 희귀본의 책을 수집하는 일과 군부대와 경찰서 또는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보낼 계획을 하고 도서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하는 도서는 각 개인의 가정에서 보던 책으로써 신앙서적, 문학전집류, 전문

도서 등 각종 책을 포함한다.

각 가정에서는 이미 보고 난 책을 가져오면 되는데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도서장학회에서는 수집된 도서 중 도서관에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기타 책은 각 기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우리 교회 도서관은 양서와 동서 합쳐서 약 17,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5월 26, 27일 양일간: 22, 23교구, 미참석자 훈련 미필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
24시간 연속기도회 - 16, 17교구

94년도 청지기훈련이 끝나간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금주를 포함하여 두 차례가 남았다. 그동안 훈련 미필자는 남은 기간동안 필히 마쳐야 한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19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이고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접수는 교육관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6교구가 5월 19일(목)부터 24일(화) 12시까지이며 5월 24일(화) 12시부터 29일(주) 12시까지 17교구이다.



현월—사랑의 실천

지난 주일은 아침부터 비가 뿌리는 쌀쌀한 날씨였다. 우리 교회가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하는 현월하는 날. 1부예배가 끝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많은 성도들이 현월에 참가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했다. 매번 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

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보통 그 사람의 인격과 업적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격을 많이 보는데 이 인격의 핵심은 정직성에 있습니다. 거짓 말하지 않고, 일구어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일관성 있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의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그의 변절 이유를 살펴보면서 기도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변절한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같이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잠시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72절을 보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그냥 '알지 못하겠노라'고 한 것이 두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절을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타락과 변절이라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자꾸만 깊어집니다. 눈에 첫발자국이 빠지면 다른 발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점점 깊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때를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라는 것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집아이보다도 더 약한 베드로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첫째는 41절의 말씀 그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마음으로 는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성경읽고 싶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막상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그 평계를 얼마나 많이 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자꾸 평계대며 변명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두번째는 고백만 있었지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잘 흔들립니다. 물론 체험중심의 신앙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꺾박이 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래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번째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라고 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좇아 가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안들립니다. 결국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짝 쫓아가야 합니다.

네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무엇이 무섭습니까? 물가(物價)가 무섭습니까? 암(癌)이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 두려웁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니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충만함을 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장부의 신앙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충현강단



베드로의 부인

(마 26:69-75)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첫째로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담하지 말고 '주님 주님이 저를 떠나가시면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속의 잠을 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잠을 잤습니다. 물론 밤에는 잠을 자야죠. 그러나 여기서 잠을 잤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잔 것입니다. 왜 잠을 잤습니까? 피곤해서 잠자고, 이래서 잠자고, 저래서 잠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속의 잠이 들면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번째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생활이 바쁘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안 보일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속의 잠에 빠지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즉시 돌이켜 다시 주님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 때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을 때에 그 신앙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변절되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여섯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충만함 받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야 합니다. 성령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리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만세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세상이 우

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충만하여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신만만 하면 안됩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한줄 알아야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습니다. 붙들 때에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건의 모양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경건의 모양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달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밖에 나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시몬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장담한 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앞에 통회자복했습니다. 그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선자와 참 회개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세속의 잠을 자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울음의 의미

레

나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키우던 감이자가 끌려가면서 우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소나 감이지도 울 줄 안다. 그런데 사람의 눈물은 훨씬 많은 의미가 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눈물도 있고,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우는 눈물도 있고, 남자를 흘리며 유혹하기 위해 거짓으로 우는 눈물도 있고, 민족의 정세를 생각하며 우는 남자의 눈물도 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울음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우는 회개의 눈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간은 모두 실패한지 경마한지 탈감중 중세에 전멸되고 있는 것 같다. 오, 왜 우리에게서 이런 눈물이 밀려가고 있을까!

글 / 신 성 중 목사

가정의 달에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조 동 원

(목사, 제9교구, 안수집사회, 출판부 지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이 말을 심방을 받는 가정에서 내가 종종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부모님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부모로써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의 기도 없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참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까? 부모로써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과 육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곧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구원과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훈련을 통하여 그 능력과 특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들의 규칙적인 기도생활은 자녀들에게 귀한 기도훈련의 장이 됩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나는 찬양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주도록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배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빠른 성장을 할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기도는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자녀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부모의 기도예를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기도란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 우리들의 일손을 멈추고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학교를 가려고 문을 나서기 전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리고 한 밤중에 아이가 잠이 깨어 두려워 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기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택하여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요한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시46:10, 사30:15).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뛰어노는 앞 마당에도, 물 속에서 수영하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교회의 의자에서도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동안에서도 우리들은 어디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기도하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 짧게 혹은 길게, 무릎을 꿇거나, 서서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수5:14). 한나는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삼상1:13).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대하6:13).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마26:39). 큰 소리로도 기도하셨습니다(눅23:46).

우리의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하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누구나 무엇을 위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은 아무 것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 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① 지혜(지식의 영)를 위하여

이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② 명철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하게 그리고 명철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철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철함이 있을 때 이단 사설에 끌려가거나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④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맷돌

무엇이 먼저인가

교회사에 나타났던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 논쟁은 유명한 논쟁이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세대에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성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신 하나님이심을 주장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보다 이들의 주장에 앞선 동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로고스—육신이신 그리스도의 통일적 개체성이 성립하기 위한 이론적 만족을 위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반면, 아타나시우스 측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땅에 속한 인간성이 거룩한 성품을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여야 한다'는 구원론적 동기를 가진 신앙의 만족을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었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이 역사의 단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다. 즉 신앙이 교리를 만들어 가이리 교리를 통해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우스꽝스러운 일 같다. 아무리 타당하고 정확한 교리일지라도,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고 교리 자체에서 출발하면 언제 어디서 아리우스의 실수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5절은 이를 뒷받침한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실업인선교회에서 특강 「효율적인 기업 세무관리」

5월 24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

실업인선교회는 오는 5월 24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세무관리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우리 교회의 성도 중 자영업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실업인선교회는 조찬기도회, 특강 등을 실시하며 회원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이만우 박사를 강사로 「효율적인 기업세무관리」란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 후에는 다과회 시간을 갖고 특강에 관해서, 기타 세무문제에 관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실업인 선교회에는 성도들의 '구인구직'을 도와주고 있다. 문의는 교회 전화(552-8200), 구내 205번으로 하면 된다.

요한전도회 연합회에서 부부신앙 세미나 개최

5월 23일(월), 오후 6시

요한전도회 연합회는 오는 5월 23일(월), 오후 6시에 베다니홀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주제하에 부부신앙 세미나를 개최한다.

30대 연령층으로 구성된 요한전도회의 각 지회가 대상인데 오후 6시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세미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가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한번쯤은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27일(금) 성석교회 목사위임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 23일(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북방선교의 연합대책 세미나 주제발표, 24일(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애인 선교협의회 총회 축도, 오산리기도원주최 제12회 전국교역자 초청 교회성장세미나 특강
2. 충현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되게 하시며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인물로 성장되게 하소서.
3. 대통령 내외분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며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4. 북한의 핵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며 길림성 기독교 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도우심속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5.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청년의 때 곧 끈고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청년들이 주를 위해 그들의 젊음을 바치며 승리하는 삶을 볼 때,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은 청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 정말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4팀으로 구성되어서 한 팀에 리더와 보조 각각 1명씩 그리고 각 팀마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창세기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부흥되는 청년부에 더 많은 리더들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고 청년들의 영적인 전쟁이 해결되자 이제 Soldado de Cristo(그리스도의 정병) 어린이들에게 영적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0명을 전도해 전도왕이었던 Daisy를 비롯하여 Joel, Gloria Raguel, Cynthia Riveros, Wilma Ojeda, Cristina Garay 등 각 팀의 리더들을 시작하여 여러 어린이 전도대원들이 3개월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 주일학교

를 처음으로 찾아온 어린이들이 250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Soldado de Cristo 어린이들이 전도를 해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간은 Semen Santa(고난주

을 앞두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뜨겁게 성찬에 동참하였습니다. Rosalia의 수술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집회 시간에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교회 나오는 동생을 꺾박하던 Blanca 부인이 변화되어 2주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집회와 성경공부까지 착실하게 참석하여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교회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지난 주에는 자기 구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10명이나 전도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 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볼 때 우리들

● 파라과이 / 변웅자 · 오경희 평신도선교사 ●

예배 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 건축 현장에 가서 기둥을 붙잡고 바닥을 붙잡으며 주의 전이 속히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전도하던 어린이들이 지금 각자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하느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린이 전도대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는 253명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달란트 잔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천막교회에서는 이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에 의자도 부족하고 장소도 좁아서 30-40명 정도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성전이 빨리 건축되어서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잔)로 3-4일간이 휴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로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 금요일을 저희 교회에서는 전교인 금식일로 선포하고 이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5명이 참석하였지만 올해 부활주일 새벽예배에는 55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드렸습니다. 예배 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건축현장에 가서 기둥을 붙잡고 바닥을 붙잡으며 주의 전이 속히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일 저녁 대예배 시에는 제3차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11명이 세례를 받았고 140명 출석중 50명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청년 중 Herman(17세)은 성격이 아주 과묵해서 어느 직장이든 3일 이상을 다니지 못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에 누군가 자기의 손을 붙잡으며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간증을 하며 죄 용서를 확신하고, 직장이 없어서 십일조와 건축헌금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그에게서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년 Rosalia 가정을 비롯하여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몇 가정들이 참석하여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청년 Rosalia는 다음 주 경에 심장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사로 전도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었는데 오랜 방황중에 있다가 심장 수술

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은 모든 일에 기도할 따름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저희들이 상상지도 못할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데 모든 중환자 가족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한 성전건축을 기초공사가 끝나고 기둥을 세우며 슬라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천정공사를 끝내야 그 아래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타일, 전기용품, 위생용품 등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빨리 사놓아야 하는데 모든 자재들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해서 성전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에 벽돌을 구입했는데 업자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물질을 모으려고 기도하던 중에 Pancho(소세지 끼운 빵)를 만들어서 매주 판매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물질을 모으고 있지만 많은 재정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낙심되지 않도록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웅자 오경희 자매는 청년부에서 파송한 평신도선교사입니다.)



▲ 건축중인 성전의 기둥과 바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